대입 교사 추천선발제 긍정 평가

연세대 2021학년도 신입생 1백여명대상 선발 추진… 김승환 교육감, 대학입시제도 변화 기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0일 연세대가 2021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1백여명을 '교사 추천제'로 뽑기로 한데 대해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연세대는 현재 중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교사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고교 지도교사 2명이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 등급과 상관없이 학생기록부·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심층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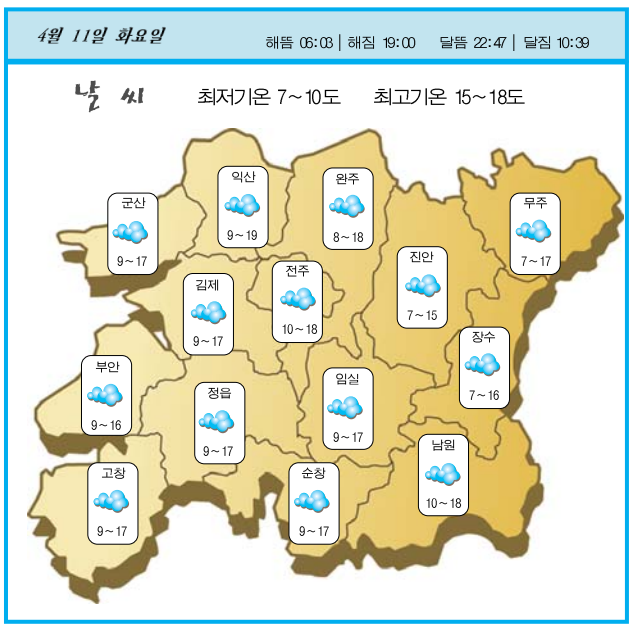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추천제 선발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대학이 바뀌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학의 총장이 교사추천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입학하는 학생 대부분이 암기 위주 반복 훈련의 틀에 갇혀 있다. 대학만 바뀌어선 안되고 중·고교 교육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제대로 된 분석이라며 "연세대의 이 시도가 입시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육감은 이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무과에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마다 입사원칙을 두고 있지만 문서상의 원칙과 실제 적용하는 원칙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기숙사는 무엇보다도 학생 개인별 필요성의 정도가 다른데 예컨대 먼 지역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일괄적으로 성적 우수자 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문서와 함께 실제 적용 사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은기자

"내가 직접 딴 딸기 맛있어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 언어교육부는 최근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에콰도르, 멕시코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과 한국어 강사 등 3백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 마이산과 삼례 딸기농장 등을 찾아 체험활동을 펼쳤다.



전북과학교육원, 레고로봇 특별체험전

2017 레고로봇 특별체험전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로봇 교육을 비롯해 스마트로봇, 전시로봇 등 다양한 레고로봇들을 직접 배우고 체험해 보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2017년 익산으로 새로 이전한 전북과학교육원은 새롭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이끌어갈 우리 인재들과 미래 과학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전북 과학교육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번 체험장에서는 Wedo 2.0, EV3 마인드스톰, Matrix 등 다양한 로봇을 이용해 서로 협력하여 북극곰을 구출하는 미션을 수행해 보고 친구와 함께 로봇축구, 로봇볼링 등 신나는 로봇 경기도 즐길 수 있다.

또한 화물 운송 경로를 모델링하여 작동하는 물류자동화시스템, 수학과 과학이 결합한 큐브 맞추는 로봇 등 다양한 전시로봇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정해은기자

이리공고, 직업교육체험 활동 수행

이리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17년 전북기능경기대회와 함께 최근 직업교육체험활동을 수행했다.

전산응용기계과에서는 3D 모델링, 3D 프린팅, 레이저 가공, 산업용접, CNC 와이어컷 방전가공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신소재화공과는 직접 만든 복분자를 전시하고 소이 캔들 만들기, 피펫 스포이드를 활용하여 전자저울에 10g을 정확히 맞추는 체험활동 등을 통해 참가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전기자동화과에서는 감정로봇, 장애물을 피하는 로봇, 팽이 만드는 공정이 자동제어 되어 있는 제품 등을 전시하였으며 로봇 서바이벌과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 블루투스로 조정되는 로봇을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련했다.

디지털전자정보과에서는 아두이노 활용 구성 관넬과 아두이노 큐브를 전시하였고 납땜체험을 통해 참가학생들에게 자신의 독특한 디자인이 담긴 기판을 만들어 가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다양한 실내 투시도 및 단면도와 목공가구 등을 전시하였으며 정보통신응용과에서는 UTP 케이블을 제작하는 활동과 음악으로 참가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사업 44억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정보화사업에 총 44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정보화사업은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구입비, 인터넷 사용료, 컴퓨터 유지 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 1만7,935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시기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컴퓨터 구입에는 초중고 학생 1,035명에게 10억원으로 1인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지원한다.

인터넷 사용료는 초중고학생 1만6,000명에게 월 1만7,600원씩 1년간 총 33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컴퓨터 유지 보수비에도 2천7백만원 등 총 4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전체로, 인터넷 사용료 지원에 대해선 법정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정해은기자

전북대 학교기업 전북동물의료센터 · 에코하우징

학교기업 지원사업 동시 선정

기업당 연간 3억원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학교기업인 '전북동물의료센터'와 '에코하우징'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계속 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 2015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규형에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2개 기업이 모두 선정된 바 있는 전북대는 이번 계속 지원으로 보다 탄탄한 경쟁력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5년 당시 5년 간 3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전북대 학교기업들은 중간평가에서 계속 지원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기업당 연간 3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2015년 전북대 학교기업인 '전북대햄'이 전국 5대 우량 대학기업에 선정돼 자립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북대가 운영하는 3곳의 학교기업 모두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동물의료센터는 익산 특성화캠퍼스에 동양 최대 규모의 동물의료센터를 신축을 통해 최신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전공 분야별 교수, 수의사, 간호사 등 40여명의 직원 등 매우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에코하우징은 불에 타지 않는 친환경 목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방염 및 난연목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5개의 특허와 국가 신기술인증(NET), 국제공인성적서 등 국내외 10여개 인증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은 기술 중심의 대표적 학교기업으로 평가되며 교육부 학교기업 우수 사례로도 선정됐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